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이지케어텍(099750)

소비자서비스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조성아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회

이지케어텍(099750)

의료IT 전문기업,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시스템으로 신규매출 확대 기대

기업정보(2020/11/10 기준)

대표자	위원량
설립일자	2001년 02월 07일
상장일자	2019년 03월 22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요제품	의료정보시스템

시세정보(2020/11/10 기준)

현재가	18,60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1,213억 원
발행주식수	6,386,000주
52주 최고가	24,550원
52주 최저가	9,350원
외국인지분율	0.8%
주요주주	
서울대학교병원 외 6인	38.8%
자사주	2.3%

■ 의료IT 전문기업

이지케어텍(이하 ‘동사’)은 의료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의 개발, 판매, 운영 및 관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의료IT 전문기업이다. 동사는 2001년 2월 설립되었으며, 2019년 3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본점이 소재하고 있다. 동사는 미국 현지법인 EZCARETECH USA, INC.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사업보고서(2020년 3월 결산)에 따르면, 동사의 매출은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판매 사업 분야에서 51.3%, 운영 및 관리 사업 분야에서 48.7% 발생하였으며, 기존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수입과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교체수요로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교체수요와 해외 진출 통해 매출성장세 지속

동사는 2003년 웹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BESTCare 1.0을 개발하였고, 2011년 Client-Server 방식의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BESTCare 2.0을 개발하였다. 현재 BESTCare 2.0으로의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내외 신규 수주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동사는 의료정보시스템의 판매 및 유지보수 수요 확대와 중동, 미국 등 해외 진출을 통한 점유율 증가로 2019 회계연도에 전기 대비 18.1% 증가한 64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매출외형이 확대되었다.

■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정보시스템 EDGE&NEXT 상용화

동사는 2020년 상용화된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서비스인 EDGE&NEXT를 상용화하였다. 동사의 EDGE&NEXT는 상급 종합병원이 사용하던 서비스를 표준화된 플랫폼으로 구현하며 짧은 구축기간과 월 구독료 방식의 저렴한 초기 도입비용에 차별성이 있다. 동사는 2020년 3월 EDGE&NEXT를 혜민병원에 최초로 구축한 후 서비스 안정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약 800여개의 중소형 병원을 타겟으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동사는 3월 결산 법인으로 본 보고서상 2019 회계연도는 2019.04.01.~2020.03.31. 기간을 지칭함.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03	553.7	4.6	44.9	8.1	36.1	6.5	13.1	9.9	36.2	716	5,797	-	-
2019/03	547.8	-1.1	36.6	6.7	38.3	7.0	10.4	7.9	25.3	773	7,219	34.3	3.7
2020/03	646.7	18.1	-21.3	-3.3	-9.9	-1.5	-2.3	-1.7	40.7	-155	6,648	-	2.0

기업경쟁력

의료IT 전문기업

- 의료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유지보수 기술력 보유
 - 병원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 (종합의료정보시스템 HIS)
- 국내외 대형병원에 대한 최다 레퍼런스를 보유
 - 국내외 50곳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51곳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운영 중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적, 지적 자원 보유

- 의료 IT 인적 자원 보유
 - 의료 IT 개발자, 의사, 약사 등 340여명의 전문기술개발인력 보유
- 의료정보화 관련 인증 및 지식재산권 보유
 - 신기술인증(KT마크), IR52 장영실상 수상, HIMSS Stage7인증, 특허등록 22건, 프로그램 저작권 49건 등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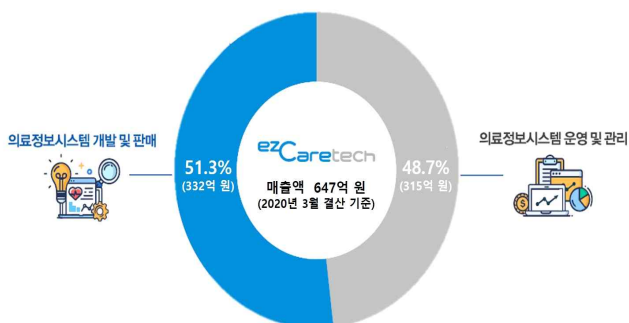
내부구축형 의료정보시스템 BESTCare 1.0, BESTCare 2.0

- BESTCare 1.0
 - 병원업무의 전반을 전자문서화한 2세대 의료정보시스템
 - 미국 HIMSS Stage 7 인증 취득
- BESTCare 2.0
 - 처방전달시스템, 전자의무기록, 약물안전관리시스템,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 병원 기능의 전산화로 진료 활동을 지원하는 차세대 의료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EDGE&NEXT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표준화된 프로세스, 기능, 인터페이스 제공
-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비용이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고객의 초기 도입비용이 저렴하여 중소형병원에 적합

매출실적



-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판매 51.3%
 -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48.7%
- 중동, 미국 등 해외 진출을 통한 점유율 증가로 전기 대비 18.1% 증가한 64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

시장경쟁력

국내 의료정보서비스 시장규모 및 성장률

년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9년	9,592억 원	연평균 5.6% ▲
2022년	1조 1,308억 원	

세계 의료정보서비스 시장규모 및 성장률

년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9년	254억 달러	연평균 5.2% ▲
2022년	296억 달러	

글로벌 의료정보시스템 업체 동향

- 시장조사기관 KLAS 조사 결과 BESTCare2.0으로 3791개 병상을 확보해 세계 시장점유율 6위 기록

국내 정책 동향

- 2025년까지 160조가 투자되는 한국형 뉴딜 정책 시행
 - 데이터 댐: 신종 감염병 예측, 의료영상진료 분야 5G-AI 융합 기술개발 추진
 - 스마트 의료 인프라: 비대면 원격의료, 스마트 병원 도입

최근 변동사항

한국판 뉴딜 과제 수행

-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수행기관 선정
 - 대면 최소화를 통한 효과적인 진료비 정산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ICT 연동 범용 인터페이스 개발 추진

제주대,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 제주대병원과 1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BESTcare 2.0 구축 계약을 체결

I. 기업현황

의료IT 전문기업,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시스템으로 재도약

동사는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유지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제품 BESTCare는 구축형 제품으로 국내외 대형병원이 핵심 고객이며, 클라우드 기반의 EDGE&NEXT는 국내외 중소형 병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 기업 개요

이지케어텍(이하 ‘동사’)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정보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1년 2월 7일에 설립한 의료IT 전문기업으로, 2019년 3월 22일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산시스템 관리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거나,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주요주주 및 관계회사 현황

동사는 2001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분사되었으며, 동사의 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2020.06) 기준 최대주주는 서울대학교병원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동사의 주식 35.17%를 보유하고 있고, 관계법인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0.23%, 서울대의과대학교교육연구재단이 0.58%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장 대표이사는 0.0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 외 8인의 주식보유 현황은 39.9%이다.

동사의 대표이사 위원장은 2009년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동사를 이끌어오고 있다.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교수, 대통령 의료자문을 역임한 바 있다.

동사는 100%의 지분을 투자하여 미국 내 현지법인 EZCARETECH USA, INC.을 설립하여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종속회사였던 (주)에이치스케어어널리틱스는 당기 중 (주)플랜잇파트너스와 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동사의 지분율이 4.95%로 감소하여 (주)에이치스케어어널리틱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동사의 연결회사에서 제외되었다.

[표 1] 동사의 종속회사 현황 및 주요주주 현황

연결대상회사 변동내용			주요주주 현황			
	회사명	사유	주요주주	지분율(%)	주요주주	지분율(%)
신규 연결	EZCARETECH USA, INC.	미국사업 활성화를 위한 미국법인 설립	서울대학교병원	35.17	성진모	0.44
			변남수	1.06	채호석	0.43
			백철현	1.0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0.23
			신홍철	0.91	위원장	0.05
연결 제외	(주)에이치스케 어어널리틱스	타법인합병에 따른 지배력 상실	서울대의과대학교 교육연구재단	0.58	-	-
			총합계		39.91	

*출처: 동사 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구성

■ 주요 사업 범위

동사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부터 판매, 운영, 관리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크게 개발 및 판매 사업과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구성(매출액 기준)되어 있다. 동사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판매 사업의 일환으로 On-premise(내부구축형) 의료정보시스템 BESTCare를 개발하였으며, BESTCare는 웹(.NET ASP) 기반으로 개발된 1.0버전과 WPF(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 기반의 2.0버전으로 구성되어 있고, 5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동사는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병원 전산실의 의료정보시스템 운영과 의료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보안패치 설치 등의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고, 동사의 의료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타 제조사의 의료정보시스템 또한 운영관리하고 있다.

동사는 부가적으로 의료빅데이터 분석, 스마트솔루션, 인공지능 솔루션 등 최신 ICT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표 2] 동사 주요 사업내용

업종	제품명	사업내용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의료정보시스템 BESRCare1.0	웹(.NET ASP) 기반 On-premise 의료정보시스템 솔루션 공급
	BESRCare2.0	Client-server 방식의 On-premise 의료정보시스템 솔루션 공급
전산시스템 관리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병원 전산실의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의료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EDGE&NEXT 웹 표준 방식의 클라우드 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SaaS)	

*출처: 동사 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구성

■ 보유 매출처 현황 및 매출구성

동사는 현재 국내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 업데이트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월정료 방식으로 지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매출처로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서울보라매병원, 이화의료원 등의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중소형병원도 주요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고, 해외 매출처로는 미국 오로라정신과병원그룹과 사우디아라비아 왕립위원회 병원 등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 홈페이지(2020년 10월 기준)에 공개된 보유 매출처 수는 국내 구축 36곳, 국내 운영 38곳, 해외 구축 14곳, 해외 운영 13곳이다.

동사 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동사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47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사업별 매출 비중은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판매 51.3%(332억 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8.7%(315억 원)로 구분된다. 신규 사업인 EDGE&NEXT는 3월에 상용화되어 매출에 반영되지 않았다.

II. 시장 동향

스마트 의료 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들과 융합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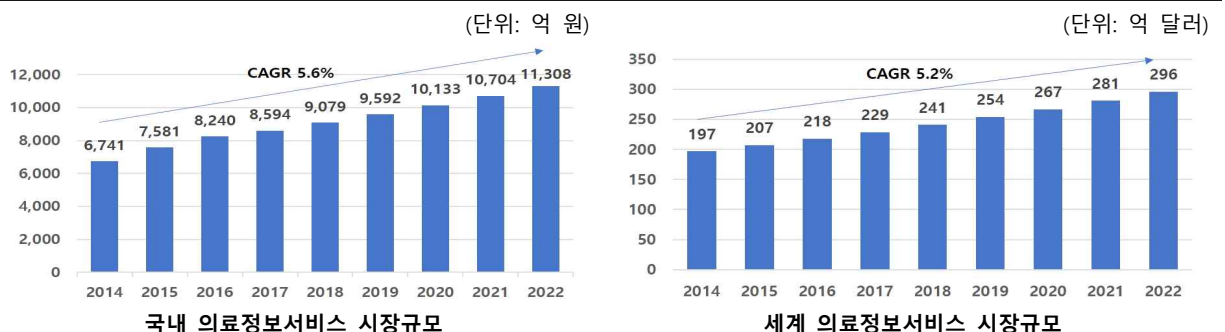
■ 국내외 의료정보서비스 시장동향

의료정보서비스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제반 업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폭넓게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총칭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정보시스템은 전자의료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s)과 전자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s)이다.

의료정보서비스 산업의 특징은 서비스 산업, 정부규제 산업, 미래 융합 산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료정보서비스는 다양하고 고용량의 의료정보 사용으로 난이도가 높으며, 의료 영상의 효과적 압축/저장을 고려해야 하므로 서버/스토리지와의 조합도 중요하고, 의사들이 원하는 진단 환경을 구현해야 하는 IT와 소프트웨어 기술, 의료가 결합된 전형적인 미래 융합 산업이다. 또한, 의료정보서비스 산업은 단순히 의료정보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는 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관련 솔루션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일종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의료정보서비스 산업은 개인 사생활 및 생명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고 있어 시스템의 개발에서 의료정보 관리까지 전 과정을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정부규제 산업이다.

Mordor Intelligenc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정보서비스 시장은 2014년 6,741억 원에서 연평균 8.4% 성장하여 2017년 8,594억 원 규모이며, 2017년 이후 연평균 5.6% 성장하여 2022년에는 1조 1,308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계 의료정보서비스 시장은 2014년 197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5.2% 성장하여 2017년 229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2017년 이후 연평균 5.2%의 성장률로 성장하여 2022년에는 296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의료정보서비스 시장규모



*출처: Mordor Intelligence, NICE디앤비 재구성

의료정보서비스는 병원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수요 증대가 예상되며, 헬스케어 분야에 정부의 투자가 증가되어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이 확대되고 있고, 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표준화 진행 및 정책 지원으로 병원 외 의료정보 제공 및 활용 서비스 증가가 해당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정보 보안 문제와 개인정보 활용 제한 문제가 있고, 대형병원에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른 시장 포화, 의료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상호 호환성 및 표준화의 부재로 의료정보서비스의 활용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 의료정보의 저장 및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외적 협력을 통한 의료정보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장치를 이용하여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진료를 지원하는 제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글로벌 의료정보시스템 업체 동향

미국의 경우 오바마케어의 영향으로 90% 가량의 병원이 EHR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글로벌 의료정보시스템 주요 벤더로는 Cerner, Epic, InterSystems, Meditech, Allscripts 등이 있고, 국내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기업은 인피니트헬스케어, 비트컴퓨터, 맥아이씨에스 등이 있으며, 서비스는 대부분 병원에 제공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KLAS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사는 BESTCare2.0으로 3,791개 병상을 확보해 세계 시장점유율 6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KLAS, Global Market Share Report, 2019).

[그림 2] 글로벌 의료정보시스템 업체 순위



2017		2018		2019	
Rank	Vendor Name	Rank	Vendor Name	Rank	Vendor Name
No.1	Epic	No.1	Epic	No.1	Dedalus
No.2	Cerner	No.2	Cerner	No.2	DXC Technology
No.3	InterSystems	No.3	Agfa HealthCare	No.3	Agfa HealthCare
No.4	Agfa HealthCare	No.4	InterSystems	No.4	Epic
No.5	Dedalus / Medasys	No.5	Dedalus	No.5	MEDITECH
No.6	ezCaretech	No.6	MEDITECH	No.6	ezCaretech
No.7	DXC Technology	No.7	ezCaretech	No.7	Allscripts
No.8	MEDITECH	No.8	Allscripts	No.8	Cerner
No.9	everis	No.9	DXC Technology	No.9	InterSystems
No.10	Allscripts			No.10	Napier Healthcare

*출처: 동사 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2020.06)

■ 국내 정책 동향: 디지털 뉴딜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났고, 코로나19로 초래된 경기침체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구분되고, 디지털 뉴딜의 대표과제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있다. 이 중 의료정보시스템의 연관 과제인 데이터 댐과 스마트 의료 인프라 사업을 살펴보았다.

1. 데이터 댐

데이터 댐은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산업 5G·AI 융합 확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과제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데이터 확충과 스마트공장, 신종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진료 등의 AI 융합 기술의 개발이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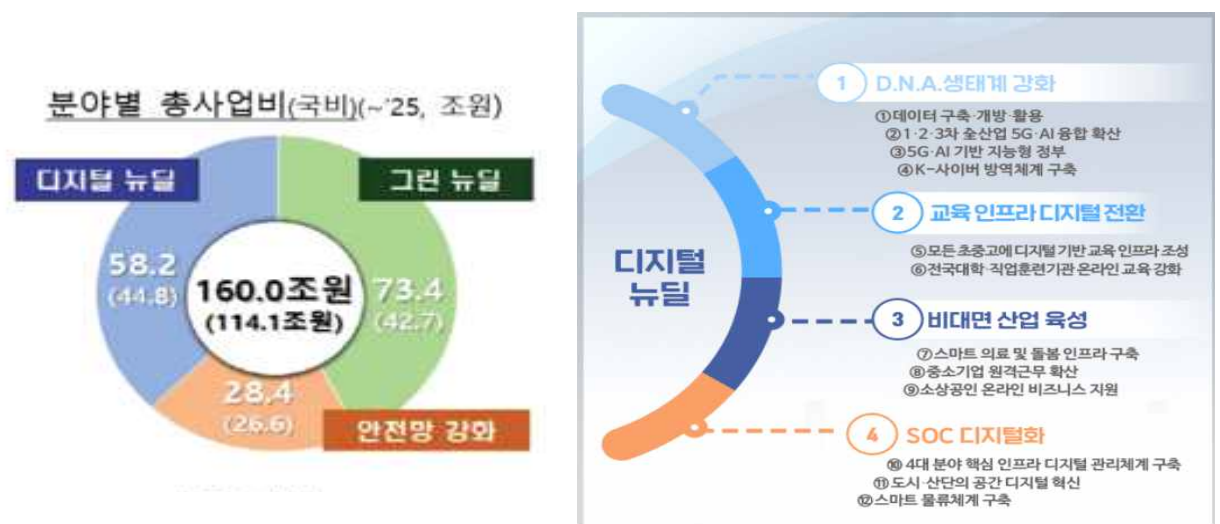
2. 스마트 의료 인프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들과 융합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원격의료 지원이 늘어나고 규제가 풀리는 등 세계적으로 비대면 원격의료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도 전화 진료를 시작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구축된 스마트병원은 격리병실과 집중치료실 환자의 영상정보를 의료진이 실시간 전송 관리해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간 협진이 가능토록 해 진료효율성이 극대화된 시스템이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스마트병원 모델 운영, 호흡기 및 발열 증상을 사전확인하고 내원시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 클리닉 개설, AI를 활용한 질환 진단 SW개발 등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약 58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 밝혔고, 동사는 디지털 뉴딜 사업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그림 3] 한국판 뉴딜 투자규모 및 주요 프로젝트



*출처: 기획재정부 카드뉴스(2020.07)

Ⅲ. 기술분석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상용화로 사업분야 확장

동사는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EDGE&NEXT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표준화된 프로세스, 기능,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며,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비용이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고객의 초기 도입비용이 저렴하여 중소형병원들이 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수 있다.

■ 의료정보시스템

의료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획득된 다량의 의료정보를 표준화하여 개인 중심의 의료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이다. 의료정보시스템은 원무 관리, 일반관리, 처방 전달, 검사 및 진료 지원 관리, 경영정보 관리, 영상의 저장과 전달, 전자의무기록 등을 포함한다.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은 단순히 관련 솔루션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안패치, 업데이트, 유지보수 등 끊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정보서비스 산업에 속하며, IT와 소프트웨어, 의료기술이 결합된 전형적인 융합산업에 속한다. 따라서, 의료정보서비스 산업은 다양한 고용량의 의료정보가 사용되며, 의료영상의 효과적 압축/저장을 고려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높다.

1. 내부구축형 의료정보시스템 BESTCare 1.0, BESTCare 2.0

동사는 의료정보시스템인 BESTCare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동사의 개발제품인 BESTCare 1.0은 병원업무의 전반을 전자문서화한 2세대 의료정보시스템으로, 2003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공급망을 확대해왔다. BESTCare 1.0을 처음 도입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2010년 미국을 제외한 지역으로는 최초로 HIMSS Stage 7 인증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의료정보시스템 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동사는 2011년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으로 불리는 BESTCare 2.0을 개발하여 공급하였다. BESTCare 2.0은 처방전달시스템, 전자의무기록, 약물안전관리시스템,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등 병원에서 필요한 기능을 전산화하여 진료 활동을 지원한다.

BESTCare 2.0은 서비스지향 아키텍처(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OA)로 설계되어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를 시스템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병원의 전반적인 정보시스템을 서비스 단위로 구축하여 다른 서비스와의 통합 및 프로그램의 수정이 용이하다. 또한, 국제화를 위해 의료IT 플랫폼과 표준 규격을 적용하여 개별 모듈의 이식성, 상호운용성, 타 시스템과의 연동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안전한 투약과 처치를 위해 투약오류예방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병원 내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BESTCare 2.0의 사양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2000년대 초 BESTCare 1.0 구축 이후 현재

BESTCare 2.0으로의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교체수요 및 국내외 신규 수주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이 예상된다.

BESTCare 2.0은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게 설계되었으며,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고 있어 중동, 미국 등 해외에도 현지화하여 판매하였다. 이를 통해 설계된 진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솔루션(CDW)으로 쉽게 활용될 수도 있다. 동사는 미국시장에 정신과전문 버전 BESTCare 2.0B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다. 동사는 미국 행동 건강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동 건강 문제를 치료하는 입원 정신 병원 및 병원 기반 외래 환자 프로그램의 워크 플로우를 개선하고, BESTCare 2.0B에 반영하였다. 행동 건강을 위해 설계된 의료정보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고, BESTCare 2.0B가 미국 의료정보 기술 표준을 관장하는 ONC-HIT(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의 Meaningful USE 3단계를 모두 통과하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미국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EDGE&NEXT

동사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유형의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시스템(Cloud HIS)인 EDGE&NEXT를 개발하고, 해민병원에 1차 구축을 완료하였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형태 및 규모, IT 투자 여력, 사용자 수준 등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편차가 크며, 서버 구축 비용, 공간, 관리 인력 등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였다. 동사의 의료정보시스템 역시 맞춤형 서비스로 범용 소프트웨어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형병원을 제외한 중소형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기에 부담이 크다.

EDGE&NEXT는 BESTCare와 달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표준화된 프로세스, 기능,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며,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비용이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고객의 초기 도입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중소형병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독립형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SI 형태)보다 시스템 구축 기간이 짧고, 리소스 사용량 최적화 및 자동화로 동시에 많은 병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제 표준을 채택함에 따라 해외 수출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동사는 EDGE&NEXT를 통해 매출처를 중소형 병원까지 확대할 수 있어 이를 통한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

[그림 4] EDGE&NEXT 지원기능 및 장점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	
짧은 구축 시간	개별 서버에 제한적인 표준으로 구축하던 기존 프로그램 대비 국제 표준화된 프로세스, 기능, 인터페이스의 적용으로 중앙 IDT센터를 통해 바로 설치 가능
가격 경쟁력	2억~5억원의 구독 모델을 도입하여 중소형 의료기관에서도 저렴하게 구축 가능

*출처: 동사 홈페이지

■ 병원업무고도화 및 스마트헬스케어 위한 솔루션 제공

동사는 의료빅데이터 분석, 스마트 솔루션, 인공지능 솔루션 등의 보유 ICT 기술을 기반으로 병원업무고도화와 스마트헬스케어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표 3] 동사의 병원업무고도화 솔루션

서비스명	개요
Patient Guide	모바일을 통한 환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의료진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및 병원 이미지 제고
ABC원가	병원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진료과, 의료행위 및 환자 등 다양한 활동 기준에 맞는 원가분석 보고서를 제공
진료정보교류	상, 하위 의료기관 간 온라인 진료 예약 및 각종 진료 내역, 검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구현하여 양방향 진료업무 효율성 증대
CDW (빅데이터 솔루션)	임상데이터를 연구, 지표 관리, 경영 등에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으로, 축적된 자료들을 진료연구와 경영분석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분석 및 조회 가능
UC	단일 채널 기반의 UC 플랫폼 구축으로 실시간 통합 커뮤니케이션 가능
전자구매	자체 물류 시스템 운영에 따른 물류비 절감 및 업무 효율성 향상

*출처: 동사 홈페이지

[표 4] 동사의 스마트헬스케어용 솔루션

서비스명	개요
모바일 EMR	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모든 의료 정보를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조회
전자동의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종이 동의서를 전자로 생성/작성/관리
베스트보드	터치모니터(Dashboard)를 활용하여,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된 환자 정보를 의료진이 One-Touch만으로 신속하게 조회
CLMA	환자 정보가 기록된 RFID or 바코드를 모바일 디바이스로 인식하여, 투약 처지/조회와 같은 간호업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
Smart Bedside Station	환자 맞춤형 정보와 각종 편의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
Smart Survey	종이로 진행하던 진료 설문을 전자화함으로써 설문 응답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통합형 키오스크	기존의 수납/처방전 발행 기능에 일정안내, 길안내, 설문조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고객 서비스 극대화한 키오스크
접수형 키오스크	기존 간호사 안내기능(간호스테이션에 접수, 진료안내, 수납안내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한 키오스크
기초검사자동화 시스템	신체정보(신장/체중, 혈압 등) 측정기기가 단말기와 연계되어 환자가 측정한 수치가 자동으로 시스템에 저장되어 신속한 진료 가능
Patient Portal	언제 어디서나 의료 및 건강에 대한 환자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및 병원 이미지 제고
Diabetes Managemnet	당뇨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안전 향상 및 병원 이미지 제고
RTLS	실시간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의 자산에 태그를 부착하고 정보를 등록하면 실제 위치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적 관리 가능

*출처: 동사 홈페이지

■ 연구개발 역량

동사는 의료IT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IT 고도화를 위해 자체 솔루션 개발 및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동사 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동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는 415명이며, 이 중 의료 IT 개발자와 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전문의료인력은 340명으로 연구개발 관련 전문 인력의 비중이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동사는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시 업무상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다.

동사는 보유 연구개발인력을 바탕으로 진단지원, 치료방법 결정 지원, 처방 결정 지원, 정보검색, 위험 알림 기능 등을 구현하여 임상에서 처방에 따른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를 개발해 의료정보시스템에 적용하였고, WBS(World Best Software) 국책과제로 글로벌 의료정보 프레임워크(HSF)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에 성공하고, 해외 수출까지 성공하여 업계에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진료정보교류 표준화 모델에 선도적인 연구 성과로 전국단위 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연구개발 성과로 신기술인증(KT마크), IR52 장영실상, HIMSS Stage7인증 등을 취득한 이력이 있고, 특허권 22건, 저작권(프로그램) 49건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 SWOT 분석

[그림 5] SWOT 분석



IV. 재무분석

2019 회계연도에 매출외형 성장 불구, 영업손실 및 순손실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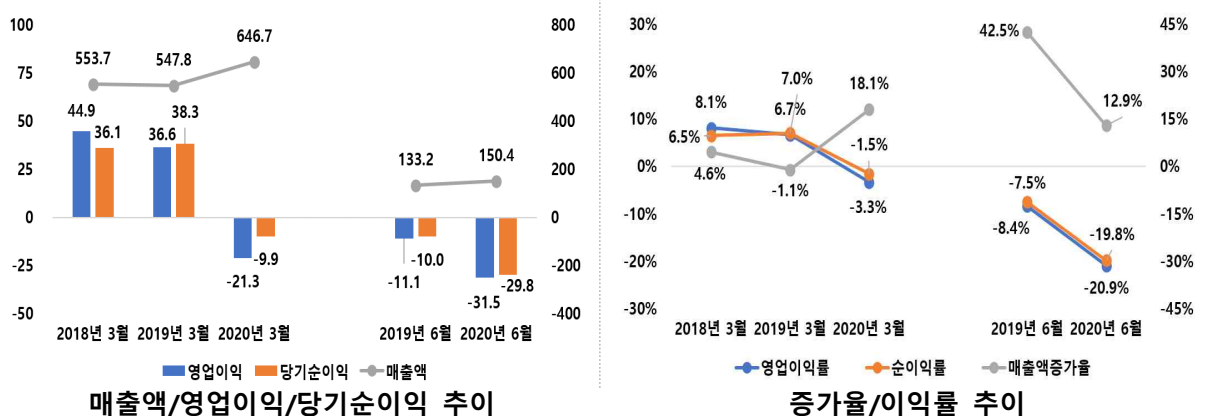
동사는 의료정보시스템에 관한 독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국내외 수주 호조로 2019 회계연도에 매출외형 성장을 보였으나, 과중한 영업비용 부담으로 적자전환하였다. 또한, 2020 회계연도 1분기에도 매출외형 성장을 나타내었으나, 전년 동기에 이어 적자를 지속하였다.

■ 의료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가 주력사업으로 고른 매출비중을 차지

동사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정보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1년 설립한 의료 IT 전문업체로서 의료기관을 고객으로 두고 자체 개발한 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19 회계연도 기준 동사의 품목별 매출 비중은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판매 51.3%,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8.7%를 각각 차지하며 직전 회계연도에 이어 고른 매출 비중을 나타냈다.

[그림 6] 동사 연간 및 회계연도 1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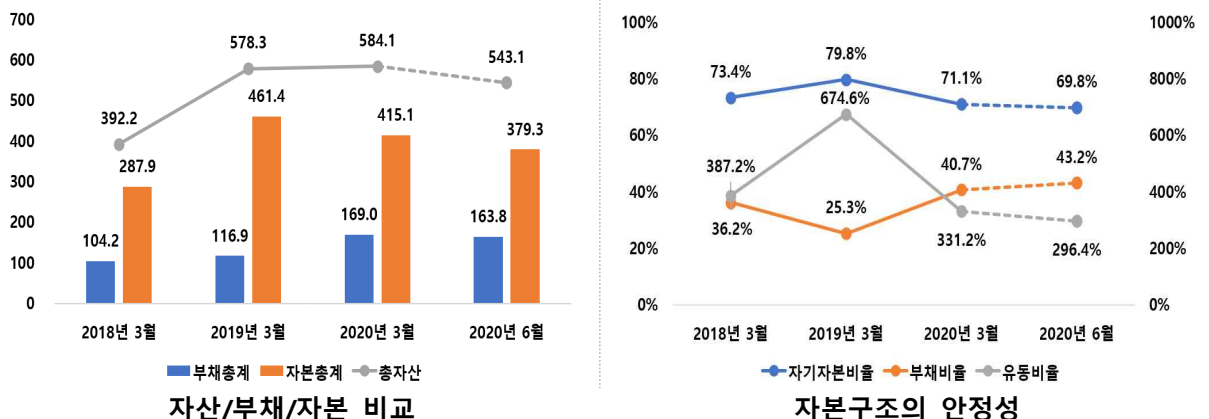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03), 동사 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2020.06)

[그림 7] 동사 연간 및 회계연도 1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03), 동사 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2020.06)

■ 2019 회계연도 매출외형 확대에도 불구하고 적자전환

동사는 국내 상급병원을 고객으로 두고 의료정보시스템의 판매 및 유지보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동, 미국 등 해외 진출을 통한 점유율 증가로 2019 회계연도에 전기 대비 18.1% 증가한 64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매출외형 확대를 나타냈다.

동사는 기존의 구축형 제품인 BESTCare 외에 국내외 중소형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버전의 의료정보시스템 EDGE&NEXT를 개발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전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해외사업 확장을 위한 미국 법인 설립 등에 따른 판관비의 증가로 2019 회계연도에 매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 21억 원, 순손실 10억 원을 각각 기록하며 적자전환하였다.

■ 2020 회계연도 1분기 성장세 지속하였으나 적자기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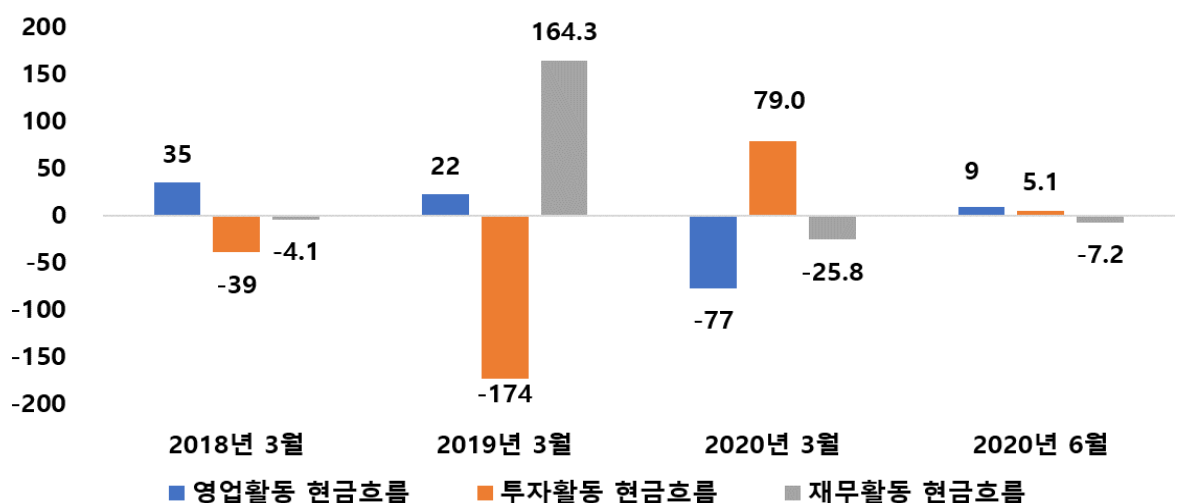
동사는 의료정보시스템에 관한 독보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국내 상급병원으로부터 수주 증가에 힘입어 2020 회계연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한 15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전년에 이어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확대 등으로 영업손실 31억 원, 분기순손실 30억 원을 각각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손실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 2019 회계연도 부(-)의 영업활동현금흐름 기록

동사는 2019 회계연도에 순손실 시현 및 매출채권의 증가 등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 확대로 부(-)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과 자사주 취득 등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금융상품의 처분 등 투자활동으로 유입된 현금으로 대부분 충당하였으며, 추가적인 현금유출은 보유한 현금성 자산으로 충당함에 따라 동사의 현금성 자산은 기초 103억 원에서 기말 79억 원으로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

[그림 8]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단위: 억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03), 동사 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2020.06)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한국판 뉴딜 과제 수행,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교체수요로 매출 성장세 지속 전망

동사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환자 대면을 줄이고 병원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IT 서비스 및 범용 인터페이스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교체수요로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 한국판 뉴딜,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수행기관 선정

동사는 ‘데이터댐’ 프로젝트의 7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데이터댐’은 2020년 7월 발표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대표 과제로, 데이터댐 7대 핵심사업으로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바우처, AI 데이터 가공바우처 지원, AI 융합 프로젝트,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사업이 있다.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50억원 규모 67개 과제로 구성된다.

동사 홍보자료(뉴스레터 제23호)에 따르면, 동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병원 내 환자 대면을 줄여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접수-진료대기-수납 등에 소요되는 병원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면 최소화를 통한 효과적인 진료비 정산 서비스’와 ‘클라우드 기반 ICT 연동 범용 인터페이스’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코로나 19로 인해 증가된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한 관심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제주대병원과 100억 원 규모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동사의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BESTCare 2.0은 국내에서 서울대학교병원(본원, 분당),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목동, 서울), 가천대길병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동산, 대구동산) 충남대학교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들에 이미 설치되었고, 현재 동국대학교의료원과 충북대학교병원에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등 대형병원을 위주로 확산되고 있다. 동사는 2020년 하루 평균 2700여 명이 내원하는 제주지역의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과 약 1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BESTCare2.0)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같이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교체수요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0 회계연도 매출 증가세 유지할 전망

동사는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독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수주를 확보하며 2019 회계연도에 매출외형 성장을 보였으며, 2020 회계연도 1분기에도 매출성장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클라우드 기반 HIS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전담인력 채용 등 비용의 확대로 2019 회계연도에 적자전환하였고, 2020 회계연도 1분기에도 적자기조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동사는 2020년 클라우드 버전의 의료정보시스템 EGDE&NEXT의 개발을 완료하고 혜민병원에 1차 구축을 완료한 바 있으며, 매출 타겟이 상급병원을 대상으로 한 기존 구축형 제품과 달리 중소형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동사의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하나금융투자(20.09.02)에 따르면 동사는 본업의 성장 및 신사업의 BEP 달성을 통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으로 2020 회계연도 매출액 721억 원(+11.6% YoY), 영업이익 47억 원(흑자전환 YoY)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하나 금융투자	Not Rated	—	2020.09.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지케어텍 비대면 진료, 클라우드 EMR 등 성장동력 다수 보유 ■ 대형병원 EMR 전문업체, 비대면 진료 시스템도 지원 ■ 2020년 EMR 수주 지속 증가 + 클라우드는 내년부터 ■ 본업은 성장하고 신사업 기대감은 높아지는 2020년 ■ 2020년 연간 매출액 721억 원(+11.6% YoY), 영업이익 47억 원(흑자전환 YoY)로 전망 		
DB 금융투자	Not Rated	—	2019.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의료정보시스템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 ■ 상반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2019회계연도 실적은 개선 ■ 독보적인 의료IT 기술력의 힘 		